

An early warning system can be so valuable, can't it? For example warning against a missile attack, a cyclone or an approaching tsunami. By revelation in his Word, the Bible, God always gives an early warning. It is a mark of his love that he warns the nations what awaits them in the future.

조기 경고 체계는 굉장히 가치있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 공격이나 사이클론, 혹은 다가오는 스나미에 대응한 경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안의 계시들을 통해 조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미래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When Australian Prime Minister, Malcolm Fraser quoted George Bernard Shaw, saying, "Life wasn't meant to be easy", the Australian electorate did not elect him again because we simply can't take too much reality. His statement was too real, and we don't want to hear reality from our leaders. God never allows us to escape from reality. For those who look to religion for an escape from the realities of life, the God of the Bible will constantly disappoint. The scandal of his revelation is that it tells us realistically how things are and what we can expect in the future. God's early warning system is in operation. Are you paying attention?

호주의 수상, 말콤 프레이저가 조오지 버나드 쇼의 말 "삶은 쉽지 않게 되어있습니다"을 인용하면서 말했을때, 호주 유권자들은 우리가 간단히 너무 벽찬 현실을 감당할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너무도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로부터 그런 현실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에 대한 도피로 종교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실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에 대한 반감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모든것이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미래에 기대할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기 경고 체계는 작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목하고 있습니까?

In one short book of 3 chapters, the prophet Joel gives us the big picture of God's purpose and plan. He shows us the old covenant in operation (1:1-2:27), he foreshadows the new covenant (2:28-32) and takes us to the end of history – to the great and final day of the Lord involving, as it does, judgment for the nations and salvation for the people of God (3:1-21).

3 장의 한 짧은 책에서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옛 언약이 여전히 작동중임을 보여줍니다(1:1-2:27), 그는 새 언약을 예언하고 (2:28-32) 역사의 끝 - 하나님이 온 민족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연관된 위대한 그 마지막 날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3:1-21).

The name Joel means "Yahweh is God". Nothing else is known about him and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date his prophecy, although it is probably around the mid 8th Century BC. The immediate concern was a plague of locusts which was widespread and wa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and of Judah. Joel used this catastrophe to call the people of God to repent, declare a fast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1:13-19). Whatever the natural causes of the locust plague, Joel saw it as part of the judgment of God on his people and called upon them to respond by calling out to God in repentance. He goes on in the second chapter to describe the invasion of locusts even more vividly, as if they were a mighty army: numberless and devastating – and the Lord thundered at the head of

(Joel 1:1-4; 2:1-19, 28-32; 2 Thessalonians 1:6-10)

his army of locusts (2:11). Again Joel calls on the people of Judah to return to God with all their hearts, with fasting and weeping and mourning (2:12-13).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가 예언했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 중반 쯤이 되었겠지만, 그외에는 아무것도 그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낱자들을 대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시의 당면한 근심은 유다의 땅에 온통 퍼져있고 유다의 땅에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요엘은 이 재앙을 사람들을 회개토록 하고, 금식을 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1:13-19)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 메뚜기떼의 재앙을 일으킨 자연적 원인이 무엇이든, 요엘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일부분으로 보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반응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 메뚜기 떼의 침입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마치 그것들이 군대인 것처럼 2장에서 이어갑니다: 무수한 파괴적인 군대 -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메뚜기떼 군대의 앞에서 우레같은 소리를 발하십니다 (2:11). 요엘은 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울부짖고 통곡함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기를 촉구합니다 (2:12-13).

Joel doesn't identify the nature of the people's sin. The people of God are probably in a drowsy, apathetic state - they are going through the motions but have lost their love for Yahweh. God will not allow them to languish in such a state, nor will he allow his people today to continue as "neither hot nor cold" (Revelation 3:16). And so he calls them to come, to return to him. He will pursue and confront them in their half-heartedness. Their repentance is the condition of their restoration, but not the cause of it. "Who knows?", says Joel, "He (God) may turn and have pity and leave behind a blessing" (2:14a). They shouldn't trust in their repentance for salvation, but in God alone who can restore them. It is God's grace alone that saves and restores - we cannot rely on our own works, even works of repentance.

요엘은 사람들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도 나른하고 냉담한 상태 - 그들은 그들은 자기들만 하는 시늉은 하지만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상태로 시들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날 그의 백성이 "차거나 덥지도 않은" (계시록 3:16) 상태를 지속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오기를, 그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는 반쪽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쫓아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들의 회복의 조건이지만 회복의 이유는 아닙니다. "누가 알겠느냐? 혹시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애석하게 여겨 뒤에 복을 끼치실까 하노라"라고 요엘은 2:14 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홀로만이 회복케 하는 분이심으로 구원을 위해 그들의 회개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것입니다 -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한 일, 심지어 회개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So Joel includes two descriptions of God's judgment, and two calls to repent and return. God's people in Judah are like the people of Israel at Mount Sinai who had made a golden calf to worship. God's word to Moses at that time had been: "The Lord,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maintaining love to thousands and forgiving wickedness, rebellion and sin. Yet he does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e punishes the children and their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Exodus 34:5-7). So Joel reminds the people of God's gracious character: "Rend your heart and no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Joel 1:1-4; 2:1-19, 28-32; 2 Thessalonians 1:6-10)

love, and he relents from sending calamity. Who knows? He may turn and have pity and leave behind a blessing – grain offerings and drink offerings for the Lord your God” (2:13-14).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가지의 설명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두가지 부르심을 포함시킵니다.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나이 산에서 우상숭배를 위한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 사대까지 보응하리라”(출애굽 34:5-7). 이러함으로 요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2:13-14).

God's response to the people's penitence is set out in the second half of chapter 2 (vv.18-27). Out of jealousy for his land, ruined as it is, and out of pity for his people, God will replenish all they have lost to the locusts: “Be glad, O people of Zion, rejoice in the Lord your God.....He sends you abundant showers, both autumn and spring rains, as before. The threshing floors will be filled with grain; the vats will overflow with new wine and oil. “I will repay you for the years the locusts have eaten.....” ”(2:23-25). They will never be shamed again and will know that Yahweh is their Go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in Israel, that I am the Lord your God, and that there is no other; never again will my people be shamed” (2:27).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에 대한 반응은 2 장 중간 두번째에 열거돼 있습니다(18-27).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는 메뚜기떼들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찌어다....그가 풍성한 비를 내리시되 전처럼 가을과 봄에 내리실것이로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그 메뚜기떼가 수년간 먹었던 것을 갚아주리니...”(2:23-25). 그들은 결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2:27).

All that Joel has so far described is a reminder of God's faithfulness to his covenant. As God had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through Moses just before they entered the Promised Land: “See, I set before you today life and prosperity, death and destruction. For I command you today to love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his ways, and to keep his commands, decrees and laws; then you will live and increase, and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Deuteronomy 30:15-16). Yahweh graciously redeemed his people from Egypt, and then he gave them the law as the means by which they were to live before him as his redeemed people. God reminded them as he gave them the law,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Deuteronomy 5:6). So now, by sending the locust plague, God was keeping covenant with his people. He had promised to bless their obedience and to curse their disobedience. Even though this promise was 800 years old by the time of Joel, God was being true to his threat to curse. But even here he was merciful – he would curse them, but had no pleasure in carrying out the curse. Thus in the opening section of the book (1:1-2:27), Joel describes the curse of the old covenant working out in the lives of God's people, Judah.

요엘이 지금까지 서술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신명기 30:15-16). 하나님은 은혜롭게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다음 구원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가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가 그 율법을 준 것에 대해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너를 종 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다”(신명기 5:6). 그래서 이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벌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요엘의 시기는 이 약속을 한지 800 년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벌하리라는 위협을 사실화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자비롭습니다 – 그는 그들을 벌했지만 그 벌을 수행하는 것을 전혀 즐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이 요엘서의 도입부분(1:1-2:27)에서 요엘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삶속에서 적용했던 옛 언약에 대한 재앙을 설명한 것입니다.

In the second part of his prophecy (2:28-32), Joel says that the day is coming when God will bring about a whole new covenant with his people. God will pour out his Spirit on all his people, irrespective of their age (young or old), gender (men and women) or social standing (masters or servants). The Spirit will give them revelation through prophecy, dreams and visions. This revelation will be associated with days of opportunity – “now is the time of God’s favou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 Corinthians 6:2b) – whereby everyone who responds to God’s revelation by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ans 10:13). Such an offer of salvation is set in the immediate context of the coming Day of Judgment. The “And afterward” at the beginning of Joel 2:28 is actually over 700 years later than Joel’s time. For Peter interprets what happens in Jerusalem on the Day of Pentecost following Jesus’ ascension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languag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 Acts 2:4) as the fulfilment of this event and uses Joel’s key promise,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for on Mount Zion and in Jerusalem there will be deliverance, as the Lord has said,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calls” (2:32). Peter made Joel’s prophecy the springboard for his gospel sermon on the Day of Pentecost (Acts 2:21-36). Such revelation in Jerusalem on the Day of Pentecost involved the explanation of Christ’s death (Acts 2:23), his resurrection (Acts 2:24) and his rule (Acts 2:33-36). This new covenant would, as Joel prophesied, be establishe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2:31). Indeed, these days of the Spirit and of the opportunity of salvation began on that Day of Pentecost and continue today. This new covenant, which supersedes the old covenant and is superior to it, includes God’s pardoning his people’s sin and then, in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coming to live in his people’s lives. Peter provided an excellent summary of the blessings of this new covenant when he exhorted the crowd on the Day of Pentecost,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2:38). Like the old covenant the new covenant is based on God’s grace, but now by his once and for all sacrifice, Jesus Christ has won forgiveness for our sin. His perfect righteousness is credited to us, so that in every way he is our substitute (Romans 3:24-25). And so, in the new covenant God keeps both his side of the contract, and our side of it. Our God is indeed mighty to save!

(Joel 1:1-4; 2:1-19, 28-32; 2 Thessalonians 1:6-10)

요엘의 예언의 두번째 부분에서(2:28-32),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의 새 언약의 전부를 가져올 때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어리든 나이들었든), 성별(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위치(주인이건 종이건) 에 관계없이 모든 그의 백성위에 그의 영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 영은 그들에게 예언, 꿈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실것입니다. 이 계시는 기회의 날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 “지금은 은혜받을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2 후반) –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지어다(로마서 10:13). 이러한 구원의 제안은 다가올 심판의 날의 즉각적 배경에 놓여있습니다. 요엘의 2:28 절의 시작에의 “그리고 그 후”는 사실 요엘의 시대로 부터 700 년도 지난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 사도행전 2:4) 이 사건의 완성으로 해석했고, 요엘의 중요한 약속(“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2:32))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계시를 오순절날에 관한 그의 복음 설교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계시는 예수의 죽음과 (사도행전 2:23), 그의 부활(행 2:24), 그리고 그의 다스림(행 2:23-36)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로 성령과 구원의 기회에 관한 이 날들은 오순절날에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오순절날 군중들에게 권고할 때 새 언약의 축복에 관한 훌륭한 요약물 제공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행 2:38). 옛 언약처럼 새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명으로 모든 희생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한 용서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의가 우리를 보증해주었고, 그리하여 그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대체물이 된 것입니다(롬 3:24-25). 그럼으로 하나님은 새 언약안에서 그 약속에 관한 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모두를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구원의 전능자이십니다!

The third chapter of the book of Joel then takes us to the final day –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the day of Christ’s return as King and Judge. What does God tell us about that day through the prophet, Joel? It will be a Day of Judgment for the nations who have neglected to heed God’s revelation. The nations will be judged for their treatment of God’s people: “I will gather all nations and bring them down to the Valley of Jehoshaphat. There I will enter into judgment against them concerning my inheritance, my people Israel, for they scattered my people among the nations and divided up my land. They cast lots for my people and traded boys for prostitutes; they sold girls for wine that they might drink” (3:2-3). God will repay them for what they have done. There is solidarity between God and his people – to reject God’s people is to reject God. God will enter into warfare with the nations and they are warned to prepare for war. But such preparation is futile for the “Lord will roar from Zion and thunder from Jerusalem; the earth and the sky will tremble” (3:16a).

요엘서의 셋째 장은 우리를 마지막 날로 데리고 갑니다 –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끔찍한 날, 하나님이 왕으로 심판자로 돌아오실 그날. 하나님은 그날에 대해 우리에게 선지자, 요엘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 모든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두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열국 중에 흘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3:2-3).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했던것들에 대해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대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과 전쟁에 돌입하실 것이므로 그들에게 그 전쟁을 준비하라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는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니”(3:16)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God's salvation of his people stands out in stark contrast to this judgment – just as the brilliance of a diamond set against the black velvet background brings out the brilliance of its lustre. Joel tells us in the second half of v.16 of chapter 3 that “the Lord will be a refuge for his people,” a stronghold for them in that awful day. His salvation will consist of provision – as we see in vv.17-18 of Joel 3: “Then you will know that I, the Lord your God, dwell in Zion, my holy hill. Jerusalem will be holy, never again will foreigners invade her. In that day the mountains will drip new wine, and the hills will flow with milk; all the ravines of Judah will run with water. A fountain will flow out of the Lord's house and will water the valley of acacias”. And his salvation will also consist of sin being pardoned (3:21). How is that possible? It is not that the sins of God's people are necessarily any less than those of the surrounding nations. Joel's prophecy was occasioned by a locust plague in Judah that was a warning by God of an even greater judgment to come – precisely on Judah. Judah was not innocent. Nor 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 we are all guilty sinners. If we are saved, it will be, not because of our guiltlessness (which doesn't exist), but because of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ur, who on the cross of Calvary bore the guilt and suffered the consequences of our sin for us.

한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심판날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부각되는데요 – 마치 검은 벨벳의 바탕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의 광채처럼 그 황홀한 광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요엘은 3 장 16 절 후반부에서 그 끔찍한 날에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방식은 공급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 우리가 요엘 3 장 17, 18 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생이 흘러나와서 잇딤 골짜기에 대리라”. 또한 그날의 구원은 죄의 용서받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3:21).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그 주변 민족들이 지은 죄보다 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다가올 – 구체적으로 유다에 - 더 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유다에 있었던 메뚜기떼의 재앙과 연관 되어있습니다. 유다는 무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도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흠잡을 데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 처벌을 겪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the wrath of God is as a consuming fire. Nevertheless, it need not touch those who are covered by the Lord Jesus Christ. There is refuge in him! The full wrath of God is revealed at two points in history: at the final judgment and at the cross of Christ, where it has already been poured out for those who trust in Jesus. If you wait until the final judgment, you will face the full fury of God's wrath alone and be condemned by Jesus. If you take refuge in Christ, he has faced your judgment for you. As Paul reminds us in Romans chapter 8,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죄다 태워버릴 불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로 인해 덮힘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역사의 두 개의 시점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날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그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입니다.

This "final day" perspective of the prophet Joel is summed up by Paul in the passage we read from 2 Thessalonians 1:6-10. God is just and so will pay back, on the Day of the Lord, at Christ's return, those who trouble his people. Christ will be revealed as King of Kings with his mighty angels to punish those who have refused to obey the gospel and to call on his name. For them it will be the end of all that is worthwhile in life and they will be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majesty of his power" forever. But also this Day of Judgment will be a day in which God's people will be vindicated. The key for God's people, for us as Christians, is not to be excluded from God's pardon and provision by unbelief. How do we show our belief? By repenting and returning to the Lord our God.

요엘의 관점에서의 그 "마지막 날"이란 데살로니아후서 1:6-10 절 말씀에서 바울에 의해 요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여호와와 그날에 그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아래 부름받고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왕중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그들이 삶에 가치를 둔 모든 것들에 마지막이 되고, 영원히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죄선고를 받는 날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점은 믿지않는자들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공급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As Joel speaks of repentance in 2:12-13, his emphasis is on the heart. He wants a true repentance and not merely a formal one. True, Joel does speak of outward expressions: "fasting and weeping and mourning". Outward expressions of an inward state are both right and valuable. But what Joel is against is outward expression that does not correspond with reality, for God looks on the heart (1 Samuel 16:7). Therefore the people of God are to rend their hearts, not their garments. God wants us to be "heartbroken" over sin. Only that will actually turn us from sin and enable us to find God's favour again.

요엘이 2:12-13 절에서 회개에 관해 말할때,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원했습니다. 요엘은 진정성의 외적 표현으로: "금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는것"을 말했습니다. 내적 상태의 외적 표현은 모두 옳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7) 요엘은 사실과 상응하지않는 외적 표현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실제로 죄에서 돌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What does repentance of this kind look like? First, it involves confession of the specific sins we have committed. Until we confess sins specifically, we are not really repenting. The second element in true repentance is contrition, that is, genuine sorrow for sin. David says in Psalm 51: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v.17).
Contrition is deeper than regret. We may all regret something we have done but still not sorrow over it. Judas regretted his sin of betraying Jesus to such a degree that he returned the blood money given to him by the priests and then committed suicide. But he did not repent of his sin and so suffered for it. God desires that we sense our guilt and weep within for what our sins have done to defile ourselves, hurt and even destroy our neighbour and dishonour Christ. The final element of repentance is conversion, the point Joel most emphasizes, using the word "return": "Return to the Lord your God". You have turned away from God and now need to turn back. This is the essential meaning of repentance which comes from a Latin word that refers to a change of mind, a change so basic that a person's life is altered. In a Sunday school class one day a young boy said that repentance was being sorry for your sins. But a young girl added that it was being sorry enough to quit. She was right, wasn't she? Repentance is essentially an about-face.

이런 종류의 회개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선 그것은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때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두번째 요소는 통회, 즉 죄에 대한 진정한 깊은 슬픔입니다. 시편 51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17 절). 통회는 후회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죄를, 대제사장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난 다음 목숨을 끊을 정도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 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식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 이웃을 상처주고 심지어 그들을 망가뜨리고, 예수를 욕되게 한 부분들에 흐느껴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의 마지막 요소,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 요엘이 가장 강조했던 점은 전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져갔고 이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변화, 즉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로 언급된 라틴어에서 기원된 회개의 필수적 의미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어느날 한 어린 남자아이가 회개란 죄에 대해 미안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 아이가 그것은 끊기에 충분하도록 미안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맞습니다, 그렇죠? 회개란 필수적으로 뒤로돌아 입니다.

We are living in the gospel age – these are days of opportunity.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Jesus; obey the gospel; rend your hearts, not just your garments; return to the Lord who is gracious,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love. Today is the day of opportunity – so do not harden your hearts by the unbelieving rejection of God's gospel. Be ready for Christ's return and the Day of Judgment so that it will indeed be a day of salvation and of rejoicing.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이때는 기회의 날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복음에 순종하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고마우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이 그 기회의 날입니다 –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않고 거부함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선 안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여 그날이 실제로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